

나주혁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건립 공사 발주

난방공사, 19일 서류심사 내년 1월7일 입찰

다이옥신 논란 ‘RDF 열병합 발전설비’ 제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내에 냉·난방을 책임질 집단에너지 시설인 열병합발전소 건립 공사가 발주됐다. 7일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나주시 산포면 신도산업단지 내에 추진 중인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위한 시설공사가 지난 5일 발주됐다.

이번 발주된 공사의 추정가액은 540억원대에, 별도 자체 발주금액만 106억원대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난방공사는 오는 19일 입찰가격 사전심사 서류를 제출받고, 내달 4일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 뒤 내년 1월7일 입찰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번 발주에서는 나주권 일부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다이옥신 환경오염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연성 쓰레기를 원료로 하는 ‘RDF 열병합 발전설비’는 제외됐다.

난방공사는 내년부터 본격화 되는 공공기관 이전에 맞춰 더 이상 공사를 늦출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 ‘천연가스(LNG) 첨두부하 보일러’와 열공급 전용 기반시설 공사를 발주했다. 난방공사 관계자는 “이번 발주에

서 제외된 RDF발전설비는 선진국은 물론 강원도 원주와 전북 익산 등에서 이미 가동되고 있는 친환경적인 시설이다”며 “나주에서 향후 설비가 완비돼 가동될 경우 RDF 고형연료는 20%만 사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혁신도시 열병합발전소에 RDF고형연료를 공급할 ‘전처리 시설’ 공사는 순항 중에 있다. 지난 2010년 말 신도산업단지 내에

착공해 올 연말 준공될 예정인 이 시설은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시험운전을 거쳐 본격 가동된다.

나주와 화순지역 쓰레기 매립 양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이 시설은 양 지역에서 발생될 1일 기준 생활쓰레기 130t 중 다이옥신 발생 우려가 있는 비닐과 고무, 플라스틱 등을 광학선별기를 이용, 엄격히 선별한 뒤 펠릿 형태의 고형연료 40t을 생산하게 된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장흥 복지관 운영비 부담 놓고

읍·면사무소-위탁관리자 마찰

“공공시설물 예산 제도 장치들”

농어촌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목적으로 마련된 종합복지회관을 둘러싸고 위탁관리자와 읍·면사무소가 공공요금 등 운영비 부담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다.

공공시설 관리 운영 예산과 관련한 제도적 기준 및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장흥군에 따르면 관내 9개 읍·면 종합복지회관은 ‘복지회관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에 따라 복지관 운영은 해당 읍·면사무소의 직역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와는 달리 읍·면사무소가 직영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이 모두 주민자치위원회나 변영회가 맡아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0월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총 21억원을 들여 건립해 운영하고 있는 회진면 종합복지회

관의 경우 면 변영회로부터 재위탁을 받아 목욕탕을 운영하던 A씨가 밀린 수도요금 2100여만원을 내지 못하는 등 적자운영 누적으로 결국 목욕탕이 폐쇄됐다.

이 회진면 종합복지회관(목욕탕)은 1일 이용객수가 130여명에 달했을 때도 불구하고 수익을 내지 못했다. 운영자 측은 매달 평균 750여만원의 수도료와 전기요금 부담과 관련 면 변영회와 마찰을 빚어왔다.

장흥지역 읍·면 종합복지회관(목욕탕)은 이용료가 일반 2500원 노인·학생은 2000원으로, 일반 대중목욕탕에 비해 절반 가격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 김모(59)씨는 “주민들의 질 높은 복지향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무분별하게 공공시설을 설치하면서도 적자 운영비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흥=김용희기자 · 중부취재본부장



인공어초 투하

강진군이 지난 4일 대형철부선과 중장비를 이용해 테트라형 인공어초 450개를 신전면 비래도 해상에 투하했다. 인공어초는 직경 3m의 삼각형 형태로, 어류의 자연산란처는 물론 은신처가 된다. 군은 지난해부터 인공어초 투하에 5억9000만원을 투입했으며, 이에 따라 어획량이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면허시험장, 찾아가는 수험생 교통안전 교육

도로교통공단 전남운전면허시험장은 7일 “수는 시험을 마친 고 3학생을 상대로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순회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면허 시험장은 나주고를 시작으로 지역 30여개 고교를 찾아 교통안전 불감증과 무면허 운전의 심각성, 올

바른 이륜차 운전방법 등을 설명한다. 학생들의 관심사인 운전면허증 취득 절차도 안내한다.

면허 시험장은 2011년 11개교, 지난해 40개교를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전북



시원한 섬진강 자전거길

오는 10일 열리는 2013년 순창 섬진강 MTB(산악자전거) 라이딩대회를 앞두고 전국 각지의 자전거 동호인들이 섬진강 자전거길 코스(63km)를 달리고 있다. 지난 6월 개통된 섬진강 자전거길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최상의 조건을 갖춘 아름다운 코스로 인정받고 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kwangju.co.kr

정읍시외버스터미널 새 단장

20억원 들여 15일 준공

주변 상권 활성화 기대

정읍시의 숙원사업인 정읍시외버스 공용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최근 마무리됐다.

지난 4월 첫 삽을 뜬지 7개월여 만에 완공된 정읍시외버스공용터미널은 7025㎡의 부지에 총면적 1360㎡ 규모로, 시비 16억원과 터미널 운영자 부담금 4억원 등 모두 20억원이 투입됐다.

준공식은 오는 15일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대화사업을 통해 터미널 상가와 승강장을 기존의 택시 승강장 방향으로 변경하고, 진출입로는 예전과 반대 방향으로 배치해 이용객들의 편의성 확보는 물론 차량 소통을 높였다.

정읍의 중심에 위치한 시외버스터미널은 정읍 교통의 거점 역할을 하는 곳으로, 시는 향후 KTX 역사 신축과



정읍시의 숙원사업인 정읍시외버스 공용터미널 현대화사업이 최근 마무리돼 오는 15일 준공식을 갖는다. 사진은 공용터미널 전경.

연계해 이용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의 활성화와 정읍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의 역할도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읍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이 그간 너무 낡아 정읍을 찾는 이들에게 낙후된 지역이미지를 심어줄 수밖에 없었다”며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역 이미지 개선

과 함께 인근 유통인구 증가 등을 통해 주변 상권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공용터미널 1층에는 대합실과 매표소, 상점, 승차 대기실이 들어섰고, 2층에는 이용객들이 편히 대기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커피숍과 사무실, 공조실이 자리하고 있다. 3층은 사무실로 이용될 예정이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장성 마을반찬산업 탄력

향토산업육성사업 선정

4년간 30억원 지원 받아

장성군이 농산물 가공을 통한 고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마을반찬산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7일 장성군에 따르면 농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14년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군이 응모한 ‘마을반찬기업공동마케팅’사업계획이 지난 6일 최종 선정됐다.

이에 군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국비를 포함한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마을반찬 공동마케팅 구축을 통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동안 장성군 마을반찬산업은 개별 단위로만 사업을 추진, 영세성으로 인해 신규사업 투자

여력이 부족하고 판로를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군은 올해부터 농업회사법인인 장성마을반찬 주식회사를 통해 향토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단을 구성, 다양한 반찬상품을 개발·판매에 나서기로 했다.

또 관내 유통주체 및 연구기관과의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해 기존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각 분야별 참여주체 간 역량결집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오는 2017년까지 반찬재료를 이용하는 농산물 공급 참여업체를 기존 9개에서 20개 이상으로 늘려 관내 농가들이 연간 85억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장성=김용희기자 yongho@

작년엔 태풍·올해엔 서리

영암 대붕감 농가 울상

영암의 특산물인 대붕감(뽕은감)이 지난해 태풍에 이어 올 해에는 서리피해로 수확량이 급감해 농가들이 울상이다.

6일 영암군과 금정농협 등에 따르면 금정 대붕감이 논이나 계곡 등 저지대에서는 70~90%가 떨어져 사실상 수확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영암 금정지역은 대붕감 재배면적이 650ha로 전남지역 최대 주산지이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대붕감 수확은 오는 20일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지난해 태풍과 올 봄 서리(냉해) 등 2년 연속 피해를 입으면서

수확량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태풍의 후유증으로 순이 나면서 올해엔 열매를 맺지 못했을뿐만 아니라 봄철 서리까지 겹쳐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금정농협 관계자는 “일부 농가는 감이 영글기 전에 모두 떨어져 수확할 감이 없다”면서 “3차례 태풍이 지나갔던 지난해보다 올해 수확량이 더 적다”고 말했다.

영암군에서는 1001농가 813ha에서 대붕감을 재배하고 있으며, 전국 재배면적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영암=대성수기자 dss@kwangju.co.kr

단 신

순창 구림면 일원서 ‘회문산 한우축제’

순창군 구림면 물통골 정보화마을에서 오는 9일부터 이틀간 제5회 회문산 싱싱쌈 튼튼 한우 축제가 열린다. 회문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운영위원회(위원장 설성환) 주관으로 구림면 구산리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소원적어 연등날리기, 쌈 채소 화분 만들기, 관광객과 함

께하는 노래자랑, 전통놀이 체험 등이 다채롭게 진행된다.

또 군은 지난해 쌈 채소와 셋팅비를 무료로 운영해 도시민들에게 시골인심을 전해준 황소고기 뷔페점을 보완해 주민과 함께 도시민들이 순창한우를 저렴하게 맛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군산근대역사박물관 9일 재즈공연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 오는 9일 ‘근대문화재와 함께하는 재즈공연’을 개최한다. 군산 근대건축관에서 개최될 이번 공연은 색소포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손성재 씨의 재즈 공연과 근대문화의 이미지가 결합하여 격조 높은 공연을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공연자인 색소포니스트이자 작곡

가인 손씨는 연세대 음악대학 작곡과를 졸업한 후 미국 보스턴 버클리 음대와 뉴욕 퀸즈칼리지 대학원에서 재즈 학위를 수여했다. 옛 조선은행 군산지점은 한국에서 활동했던 대표적인 일본인 건축가 나가무라 요시헤이 가 설계해 1922년에 신축됐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정읍경찰서,수렵장 사고예방 민간관담회

정읍경찰서(서장 김동봉)는 지난 6일 수렵장 총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 수렵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하기 위한 민간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정읍시청 관계자, 정읍시 밀렵 감시단 관계자 등은 유탄이나 오인사격에 의한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논의

했다.

정읍경찰청은 수렵장 주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입산을 자제를 당부하며 밝은색 옷 착용 등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정읍시는 밀렵감시단을 편성·운영해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닦이나 울두 등을 회수하기로 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남원시립국악단, 日 가고시마현 방문 공연

국내는 물론 미국, 영국, 중국 등에서 활발한 해외 공연을 펼치고 있는 남원시립국악단이 일본 가고시마현 히오키시를 방문해 한국 국악의 진수를 선보였다.

후호문화교류 도시인 히오키시의 초청으로 일본에 방문한 남원시립국악단은 지난 2일 낮 사쓰마 도요지 축

제 야의 공연장에서 현지인 6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일체창 사랑가, 교방 살풀이, 메나리 삼중주 등 국악 공연으로 현지인들의 호평을 받았다.

같은 날 오후 7시 이쥬인 문화회관에서는 부채춤, 판소리 춘향가, 퓨전 가악 공연 등을 선보이며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다. /남원=백성기자 bs8787@